

일 주 문

구인사 개산 기념 법요식
천대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6월 13일 단양 구인사에서 구인사 개산 68주년 기념 법요식을 거행한다. (043)420-7308

자비도량참법 10일 기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6월 17~26일 오후 12시 경내 관음전에서 자비도량참법 10일기도를 봉행한다. (031)221-2324

노고단 트레킹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6월 22~23일 '노고단 트레킹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61)782-7600

문화유산답사 템플스테이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7월 5~7일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답사' 주제 템플스테이 여름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54)429-1700

서산대제 세미나 국회회관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산대제 학술세미나를 연다. (061)534-5502

2013 청년출가학교
해남 미향사 주지 금각 스님은 6월 30부터 7월 8일까지 '2013년 청년출가학교'를 개최한다. (02)2011-1812

해원정사 음악회
부산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6월 15일 오후 5시 해원정사에서 해원음악회를 연다. (051)868-0138.

연수형 여름철 음식 강좌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은 6월 14~16일까지 '선재스님과 함께하는 연수형 여름철 음식' 주제로 음식 강좌를 연다. (055)382-7182

인재호 영남고고학회장 선출
안재호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6월 1일 영남고고학회 총회에서 영남고고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경찰사범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최기석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장 박훈선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성근 △학사지원본부 대학원팀장 겸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주성재

“빈곤국가 지원은 당연한 불사”

미얀마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오늘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은 지구촌공생회 1만여 후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의 지구촌공생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지구촌공생회가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구현을 위한 빈곤국가에 지원과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사진)이 6월 7일 미얀마대사관에서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a Jotikadhaja) 작위를 수훈했다.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이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부가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다.

매년 사회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한 스님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미얀마 자국 스님들 외에 외국인 스님들에게 주어진다.

2013년 수훈자로 선정된 월주 스님은 지난 2008년 나르기스테프 재단 복구를 위해 이리외디 삼각주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지원하면서 지구촌공생회 미얀마 지부를 설립했다. 이후 스님은 미얀마 기부 교육지원, 식수지원 사업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미얀마 주민들을



미얀마 학교건립과 물탱크 지원 등 꾸준히 주민들 자립 위해 노력
“1만여 후원자들에게 주어진 것”
상금 전액 지구촌공생회에 기부

위해 8개의 학교와 11기의 물탱크를 건립하는 등 꾸준히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원래 이 상은 지난 4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직접 수여받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이번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수훈식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얀마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뜻을 밝혔다.

이제 지구촌 공생회는 4명의 미얀마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님은 앞으로 미얀마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교육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운문사 강월 스님들의 지원으로 우리 지구촌 공생회에서 4명의 미얀마 학생을 초청해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얀마가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님은 이날 받은 상금 전액을 지구촌공생회에 기부 빈곤국가 지원에 보태겠다고 전했다. 수훈식에는 주한 미얀마대사관 우닌 흘라잉 대사, 묘 단 페이 부대사, 삐얏 피다 쩌이등서기관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님, 사무처장 화평 스님, 익산지회 덕림 스님, 영화사 상묵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월주 스님은 범주사에서 금오 스님은 은사로 사미계를, 1956년 화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17대 총무원장(1980)과 28대 총무원장(1994~1998년)을 역임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이념과 종교, 국경을 넘나드는 깨달음의 사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나눔의 집 이사장,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월서 스님, 라오스에서 자비행 실천
학교 개보수 협약...캄보디아 교과서 전달 등



천호희장제단을 설립해 캄보디아 내팔 등 제 3세계 국제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는 원로의원 월서 스님(사진 왼쪽)이 최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실천했다.

천호희장제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5월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응트 사원을 방문해 품 사마트 라오스 종정과 오지마을 학교 개보수 및 장학금 지급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스님은 5월 29일 캄보디아 오도르민제이주에 있는 오지마을 안롱 뱅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 교과서 3,000여권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시엠립 시오르 크람 마을에 쌀 1톤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혜민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1억 전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자 힐링멘토인 혜민 스님이 중앙승가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인스님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혜민 스님(사진 오른쪽)은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예방하고 자비나눔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혜민 스님은 “중앙승가대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어학공부를 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자비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경주 동국대, 원아시아 이사장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6월 5일 교내 원효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사도 요지 원아시아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사도 요지 이사장은 수강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의 상호 연대와 공동 협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문화 이해하면서 세계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아시아재단 특강은 3월부터 한국, 중국, 일본 교수진들의 교환 강좌로 총 14회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신라사 연구는 곧 불교 연구”

학회 창립 10주년 맞이하는

김창겸 신라사학회장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신라사학회는 2002년 8월 2일 신라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스타디 모임을 결성한다 이어 자발적으로 2003년 3월 정식학회로 구성했다.

6월 15일 '신라 범흥왕대 불교공인회의와 대왕릉류사' 학술발표회와 8월 31일 창립 10주년 기념 신라사학보 28집을 준비 중인 김창겸 교수는 창립 당시 신라사학회의 의미와 향후 학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창겸 교수는 “신라문화가 한국 역사문화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신라 불교에 대한 연구는 한국 역사문화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라사학회는 신라 불교의 수용 및 공인과정과 삼국통일 전후 교학 불교의 발전모습, 신라 말 고려 초 당시 선종불교의



스터디 모임서 출발, 800여 회원 활동
126회 학술 발표, 불교연구 기여

발전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현재 800여 학회 회원이 활동 중인 신라사학회는 10년 동안 매달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6월 열리는 학술발표회까지 총 연구발표회는 126회에 달한다.

연구발표회는 불교 관련 금석문을 중심

으로 신라사 흐름을 살핀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적산 법화원을 건립해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주도한 장보고의 불교신앙을 살린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신라사', 미륵사지 자료를 분석한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특히 불교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김창겸 교수는 “기존 연구 성과에 머물리지 않고 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 불교사 내지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원형이 형성된 신라사 내지 신라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신라사에 대한 연구 또한 옛 중심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 발전할 때”라며 “향후 남북통일 후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도 반영해 균형 잡힌 학국사 고대사 체계를 세우면서,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역사와 연계해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 고대사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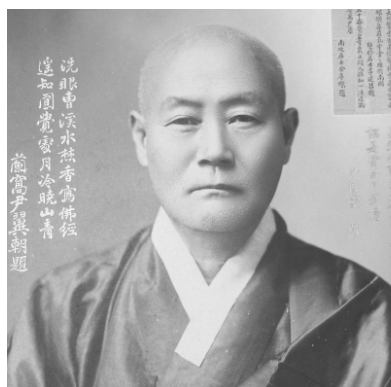
‘경운원기 선사’의 생애와 사상’ 세미나

신록의 계절에 근대 한국불교 화엄종주인 경운 원기(擎雲 元奇)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려 합니다. 스님은 30대 초반에 통도사에서 법화경 2질을 금사로 사경하셨고 50대에는 화엄경을 은사로 사경하셨으며 또한 선암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에 맞서 전통을 수호하려 애쓴 고승입니다. 수행의 엄격함과 경학의 해박함 그리고 서화에 뛰어났던 스님은 대중들로부터 생불로 존경받았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뜻을 선양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제 미흡하나마 스님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여 후학의 도리를 다할까 합니다. 부디 두루 동참하시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동국대학교 다항관 세미나실
◆ 주최 : 경운원기선사문도회, 경운원기선사 사상실천선양회, 태고총림선암사
◆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신문사, (사)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 BBS불교방송, 불교TV

- 1부 (14:00 ~ 14:20) 삼 귀 의 반야심경 인사말씀 축사 사홍사원



경운원기 스님

- 2부 (14:30 ~ 16:30) 주제발표 및 토론
기조강연 : 擎雲 元奇의 불교사적 위상(법산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제1주제 : 근대 선암사와 화엄종풍(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제2주제 : 화엄종주 경운원기의 사상(신규탁, 연세대 교수)
제3주제 : 근대 경운원기의 활동(김경집, 위덕대 교수)
제4주제 : 書畵에 나타난 예술세계(진철문, 동국대 교수)

경운원기선사문도회 결성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지암 권금용 이흥파
경운원기선사 사상실천선양회(가칭) 회장 임호명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백설운

* 행사관계 연락처 : 염불사 호명 (011-9048-9395)